

보도시점 2026.9.16.(수) 14:00 배포 2026.9.16.(수) 09:00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
헌법상 자문기구와 기획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 -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경수)는 9월 16일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미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전망하고, “국민 누구나 미래를 기대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향을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 헌법상 자문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동세미나 개요 >

- ▶ (일시 및 장소) 9.16일(수) 14시~17시,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
- ▶ (개회사) 기획예산처 장관
- ▶ (공동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 (주제발표) 서용석(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원승연(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김미루(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 (종합토론) 김가영(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민정(과학기술정책연 부연구위원) 최민철(산업연 산업혁신정책연구실장)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는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첨단기술·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병목 해소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혁신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설계’를 제시하고, 미래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향후 AI 고용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며,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국가 R&D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 독립 경로와 비선형 이동의 정규 경력 인정을 통해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고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AI 시대 청년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끊어진 사다리를 잇는 6대 전략(제안) : ① 국가 R&D가 첫 경력 창출(First Experience Track) ② AI 입문직(AI와 함께 일하는 초급 전문직) 재설계 ③ 경력의 검증 가능한 증거화(Experience Passport) ④ 대학의 경험 생산기관화(Mission Campus) ⑤ 실패와 재도전 보장(청년 기술도전계정) ⑥ 기술 성과지표에 인재 재생산 포함(R&D KPI 혁신)

- 이어 원승연 경영학부 교수가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AI 혁신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 민주화 세대의 성공 방정식과 기득권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시대 전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과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및 혁신 수용적 제도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45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의 향상이 국민의 일과 배움, 주거와 돌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더 강한 성장·더 따뜻한 공동체·더 책임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도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의 5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이러한 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재정과 실행 체계의 혁신을 제시하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체계를 개편하고,

단순한 투입액보다 지출의 문제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정책 지원과 평가의 기준이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공동 좌장을 맡아 다음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토론에서 김가연 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는 딥테크 학부생에게는 기존 경력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첫 칸 자체가 부족하므로, 국가 R&D가 개방적인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 혁신 전주기에 청년 참여 경로를 연계하고 기업·정부·대학이 협력하는 ‘첫 경력 형성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숙련과 암묵지가 세대 간에 끊임없이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초기 학습·경험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AI 접근성부터 PM·PD의 기획 권한까지 중견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경력경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최민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산업정책과 교육·고용·지역 정책을 결합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람의 역량 축적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 좌장인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람의 성장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세대에게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숙련과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학생과 청년 연구자는 2045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갈 주체라며 다음세대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래세대와 진정한 동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포용·인적 역량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실제 발언 등은 현장, 각 기관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국민소통단	책임자	국 장	이성원 (044-214-1603)
		담당자	사무관	김채운 (cy901@korea.kr)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총괄팀	책임자	팀 장	계강훈 (02-731-2412)
		담당자	사무관	배수찬 (bae1197@korea.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획총괄팀	책임자	팀 장	황한진 (02-710-6420)
		담당자	전문위원	최원재 (cwj147@korea.kr)



<인사 말씀>

존경하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려가는
헌법상 최고 자문기관들과 기획예산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귀한 지혜를 나눠주실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살아갈
청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황 진단: 문명사적 대전환과 갈림길>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 안에 함께 이루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제조업 기반의 수출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AI와 바이오, 배터리, K-컬처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가 경제와 사회의 근본 질서를 바꾸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의 재편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면
성장잠재력은 낮아지고 있고,
산업과 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기성세대,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있고,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빠르게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래의 기회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IT 기반을 가졌고,
반도체와 첨단산업, 문화 분야에서도
분명한 강점을 지녔습니다.

아직 세계의 표준과 질서가 정해지지 않은
AI와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확보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입니다.

<2045 대한민국: 혁신과 성장, 국민의 삶, 세계의 신뢰>

20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00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처럼 노동과 자본을 양적으로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 역량입니다.
에너지,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혁신의 씨앗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특히 AI는 하나의 산업을 넘어
기업이 생산하는 방식, 사람이 일하는 방식,
정부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병목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 전환 역시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입니다.
AI 전환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과 에너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의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환이어야 합니다.
전력수요 대응과 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AI 시대의 변화는 산업과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노동과 자본의 관계,
나아가 일과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45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20년 연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의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얻을 것인지,
더 많은 창의와 자율성을 누리면서
각자가 원하는 삶과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혁신은 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혁신이 공동체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술혁신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고,
다음세대가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자산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회라면
기술의 발전만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삶의 어느 순간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거와 건강,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노동,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수도권과 지방이
변화의 비용과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감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그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셋째,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
에너지와 핵심 자원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경제안보는 이제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핵심 산업과 기술을 지키고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유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과 분열보다 협력과 평화를 이끌며,
우리의 문화와 가치로
세계인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힘과 문화의 힘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나라.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선도국가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역할: 선제적 투자, 구조개혁, 미래설계>

여러분,
이러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선제적 투자입니다.

미래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면
국가가 한발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AI와 첨단기술, 인재와 교육,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과감한 구조개혁입니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바뀌는데
과거의 제도와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바꾸고,
한정된 재원은 미래에 더 필요한 곳으로
재배분해야 합니다.

셋째는 담대한 미래설계입니다.

국가전략은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 한 권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 선택이어야 합니다.

경제와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와 복지, 교육과 환경,
외교와 안보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도 바꿀어야 합니다.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데 머무르는 대신,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투자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을 열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울러, 부처와 기관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협업하고,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더 유능하고 민첩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과 맺음말>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다음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자,
오늘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 있을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은 얼마나 커질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

다음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며칠 전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

실패하거나 뒤처지더라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해에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늘 함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더 폭넓게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